ARKO Art Center

2021

아르코미술관

전문인 교육

ART TALK

아트토크

에듀케이터 과정(1)

아르코미술관

Contents

2021 ART TALK
아르코미술관 전문인 교육
아트토크
에듀케이터 과정(1)

예술로 말 걸다, ART TALK 4

About 말 걸기 + 12

TALK 1
에듀케이터는 무엇을 연대하는가? 14
조장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TALK 2
'아트토크_에듀케이터'가 만드는 작은 변화의 씨앗 16
유현주 생태미학예술연구소 대표

TALK 3
이제 막 시작된 2200년 우리의 물 이야기
무진형제 작가 20

Program 대화 & 24

INTRO
물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에게 〈2200년 물의 얼굴〉 26
이지연

EDUCATOR TALK
잊혀진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법 28
강경원

INTERVIEW
2200년 물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34
김주희·김민정

EPILOGUE
아트토크에서 길어올린 에듀케이터의 문장들 38
김란희

예술로 말 걸다
ART TALK

아르코미술관은 창의적 예술 생산자를 위한 대안적 성격의 공공기관으로 동시대 예술 현장의 신진 작가와 기획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아르코미술관이 진행해온 〈아트토크〉는 문화예술 전문가와 신진 예술가의 작품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각 과정별로 4주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시각예술 분야 전문가와 신진 예술가는 예술적 소통을 나누고 풍성한 예술 담론을 나누는 네트워킹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2021년에는 신진예술인의 네트워킹 플랫폼 '인사미술공간'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예술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예술 현장에서 실천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2021 ART TALK 전체 일정

◆ 6월 4일 ~ 6월 24일

큐레이터①
시각예술 비평 사례 연구 및 토론
희망 작가 인터뷰 및 비평 작성

◆ 7월 8일 ~ 7월 29일

에듀케이터①
환경과 생태계를 연구하는 예술경험 방법 연구
〈바깥에서 즐기는 아르코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실현

◆ 8월 5일 ~ 8월 26일

작가①
디지털 작품 창작 연구
디지털 작품 창작

◆ 9월 2일 ~ 9월 23일

큐레이터②
전시 기획 연구
메타 비평

◆ 10월 7일 ~ 10월 28일

작가②
유니티 엔진을 활용한 오큘러스 HMD기반 가상현실 작품 창작
가상 현실(VR)기반 창작 작품

◆ 11월 3일 ~ 11월 24일

에듀케이터②
디지털 소외계층 예술경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에듀케이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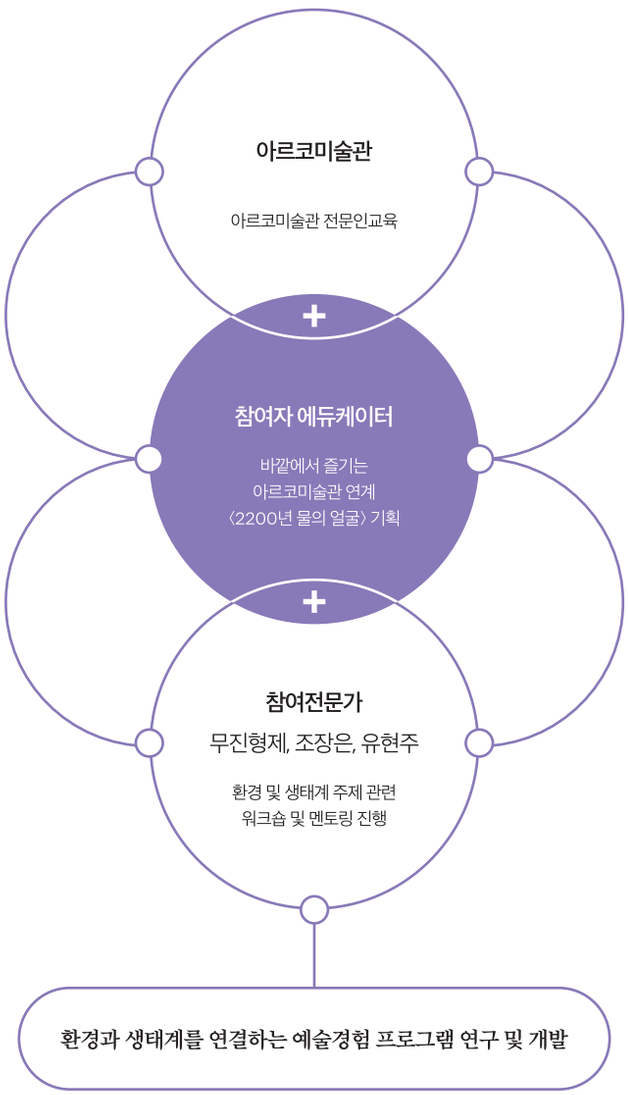
〈아트토크_에듀케이터〉 과정의 첫 번째 시간은 환경과 생태계를 연결하는 예술경험 방법 연구로 이루어집니다. 에듀케이터들은 환경 관련 예술가들의 예술작업과 실천사례를 연구하고, 워크숍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했습니다. 에듀케이터 과정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바깥에서 즐기는 아르코미술관〉과 연계하여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었습니다.

일정

구분	주제	강사
오리엔테이션 (7월 8일)	프로그램, 강사, 참여자 소개 [토론] 참여자 교안 공유, 발전방향 모색	**조장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사례 연구 (7월 15일)	'환경' 관련 예술가들의 예술작업과 실천사례들 [토론]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사례	**유현주** 생태미학예술연구소 대표
워크숍 (7월 22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무진형제** 작가 **조장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성과공유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1년 바깥에서 즐기는 아르코미술관 〈2200년 물의 얼굴〉	**강경원, 김란희, 김민정, 김주희, 이지연, 무진형제**

함께한 사람들

미술관 공간은 전시,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관람객들에게 문화적 체험 및 예술 참여 활동을 유도하고, 미술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르코미술관, 참여자(외부 에듀케이터) 그리고 현장 전문가가 새로운 협력 방식을 통해 시대적 고민이 반영된 주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하였고,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 방식도 확장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와 교류·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민정

영등포문화재단 수변문화조성사업의 운영 및 기획 실무담당자로 도시환경 중에서도 물과 물 주변 일상공간(수변), 문화예술의 호혜로운 상호작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우리 삶과 가까운 환경과 생태계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장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예술경험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예술경험을 통해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까?'를 동시대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 고민해보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



김주희

미술이 세상을 바꾸는 사회정치적 실천의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현대미술이론을 공부하고 있다. 최근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친환경 신소재 개발 등 지속가능한 방식의 공예 작업을 연구하며 친환경적 실천으로서 미술이 가진 확장된 가능성에 눈뜨게 되었다. 에듀케이터 교육 과정을 통해 미술과 환경, 미술과 대중이 만나는 장에 직접 참여하고자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인문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술과 일상에서의 실천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김란희

한 톨의 콩처럼 인간 역시 생태계의 일부분임을 되새기며 다양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람들에게 인간과 환경이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전하는 작업에 관심이 많다. 이번 아르코미술관 에듀케이터 과정을 통해 다른 참여자, 작가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환경과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더불어 환경에 관심이 있는 예술 참여자들에게 매개자로서 다가가기 위한 연습과 준비를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강경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유아, 초등학생, 가족, 작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대중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화 욕구를 관찰하고 예술 경험으로 나누는 에듀케이터에 주목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식량안보 문제를 이해하고 삶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동기를 줄 프로그램,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에듀케이터 과정을 통해 멈춤 없는 예술 교육의 방안과 플랫폼을 논의하며 예술 매개자로서 한 발 나아가고자 한다.



이지연

시각예술과 디자인 현장에서 근무하며 학교 안팎의 예술 디자인 교육을 병행해 왔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방법론을 참여형 예술 활동의 맥락으로 풀어내고 있다. 현재 팩토리2에서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의 코디네이션을 담당하며 함께 배우기의 과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에듀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예술과 사회참여예술의 맥락에서 관객과 시민들의 인식을 재고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자 한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업 또한 기대하고 있다.

EDUCATOR

조장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미술사, 신문방송학, 미술관학, 미술경영학을 전공했다. 200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람객들과 함께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가치를 확산하는 다양한 형태의 접점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회와 소통하는 공론의 장, 예술의 다양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참여의 장으로서 '미술관'의 공적 역할에 관심이 많으며, 소통과 참여, 예술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지향하는 포스트 뮤지엄과 미술관교육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다.

유현주 생태미학예술연구소 대표

한남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학과에서 Th. W. Adorno의 미학연구로 석사와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문화재청 후원으로 열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세계문화유산축전)》의 행사 중 하나인 아트프로젝트 《불의 기억》 전시감독을 맡았다. 세계적인 생태예술가 아비바 라마니(Aviva Rahmani)가 참여한 국제전 《화성에서 온 메시지》 전시감독(한국화학연구원 주관, 2017)을 역임하였다. 생태미학예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꽃》 전시시리즈 및 도시-생태-예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기획해 왔다. UNIST의 과학예술융복합전시 자문위원이며 구글 "에코아트-리스트" 그룹(the Google Group "Ecoart-list")의 일원이다. 대표 저서로 『대중문화와 미술』(미진사), 『인공지능시대의 예술』(공저, 도서출판 b)이 있다.

무진형제 작가

문예창작과 조소, 사진을 전공한 세 명의 작가(정무진, 정효영, 정영돈)로 구성된 미디어 작가그룹이다. 영상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아트, 사진, 구술 등 각기 다른 매체를 융합하여, 주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포착한 감각과 이미지를 재조합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아트스페이스 풀, 2019), 《여름으로 가는 문》(백남준아트센터-메자닌 스페이스, 2018), 《궤적》(아카이브 봄, 2018)이 있다. 최근 브라질 Sata Catarina에서 열린 《10th Balneário Camboriú International Film Festival(FICBC)》(2020)와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소장품》(2020), 국립현대미술관 필름앤비디오 프로그램인 《디어시네마: 차이와 반복》에 참여하였다.

참여전문가

정지은

학교교육을 기반으로 문화 행정 교육, 예술 교육 등을 담당하였다. 현재 아르코미술관에서 아트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 〈아트토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실험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민영

다양한 사람과 예술의 즐거움을 함께하고자 미술관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현재 아르코미술관 에듀케이터로서 열린교육 및 전문인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축소된 예술 경험을 관람객들이 지속할 수 있는 미술관교육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오은미

현재 아르코미술관에서 〈아트토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타기관과 함께하는 협업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술관과 외부를 연결하고 대중과 미술관이 상생하는 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윤지

아르코미술관 교육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전문인교육 기획 및 운영을 보조하고 있다. 예술과 교육 그리고 디지털 매체 및 과학기술을 매개하는 예술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예술 교육 및 경험을 탐구하고 있다.

아르코미술관 교육팀

말 걸기
+

조장은
유현주
무진형제





About



에듀케이터는 무엇을 연대하는가?

write.

조장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글쓰기에서 실천으로, 확장하는 에듀케이터

동시대 문화와 사회를 함축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사회적 속성을 띈다. 이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새로운 담론은 생성하며 순환시키는 미술관 역시 사회적 공간이다. 사회, 예술, 미술관, 대중의 접점에 있는 에듀케이터의 역할은 관람객과의 소통, 연결을 확장을 강조하는 포스트 뮤지엄 시대에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듀케이터는 미술관 (또는 보다 확장된 개념의 문화예술 공간)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그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이러한 고민들로 〈아트토크_에듀케이터 과정〉이 시작되었다. 미술관,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에서 에듀케이터로 활동하기 시작한 새내기들의 열정은 뜨거웠다. 미술관 교육의 실무, 현장 사례, 국외 사례 등으로 구성한 첫해 과정에 이어, 2020년에는 '에듀케이터의 글쓰기'를 주제로 다양한 유형의 '글'들을 통해 에듀케이터의 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 과정은 전 지구적 역병의 시기, 사회적 의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에듀케이터들의 연대를 기대하며 기획되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역설적으로 정서적 연대를 강조하는 오늘의 상황은 자연과 환경, 생태적 가치와 실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그 간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신념과 가치 체계가 전복되고 나와 일상,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된 지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일회성 캠페인 구호가 아닌 지속가능한 삶의 태도와 실천의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보다 깊이 있는 사색과 내면의 성찰, 인문학적 접근이 가능하되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와의

협업이 유효할 것이라는 생각에 문학을 기반으로 일상의 이야기를 작품화하는 무진형제와 뜻을 모았다. 환경과 생태에 대한 참여자들과의 사전 워크숍에서 환경, 생태, 실천, 지속가능성 등의 키워드를 도출하고, 대중과 함께 생태적 가치의 발견과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다. 비대면 활동이어야 하는 물리적 제약과 '생태'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의들을 명료화하기 위한 방법, 생태적 개념이 실천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 작가와의 협업 등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무진형제와 참여자들이 함께 한 워크숍을 통해 그 간 상실되었던 물과의 연대를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물의 보존을 가능케 하리라는 기대를 모아 〈2200년 물의 얼굴〉이 기획되었다. 대중은 온라인을 통해 개개인의 이야기들이 모여 180년 후 우리가 마주할 물, 자연, 생태에 대한 생각을 집적하는 작업에 동참했다.

연대를 통한 연결 그리고 확장

공존과 연결의 키워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와의 관계에서 역시 유효하다. "함께여서 가능했다"는 참여자들의 후기에서 필자는 에듀케이터들의 '연대'의 힘과 이를 통한 연결과 관계의 확장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에듀케이터는 예술과 사회, 그리고 대중을 어떻게 연결하고 관계망을 확장하는가? 물과 인류 사이의 공존과 연대의 감각이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 이들의 기획처럼, 에듀케이터가 매개하는 예술과 대중의 연대를 다시금 상기해보자. 예술과 사회, 미술관과 대중, 공교육 현장과 미술관 현장, 문화정책과 예술정책 등 에듀케이터가 연결하고 확장하는 관계망은 다층적이고 광범위하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지하든 그렇지 않든, 이들은 끊임없이 '연대'를 제안하고 그 파급력을 확산한다. 에듀케이터의 사회적 실천 의지를 독려하고 지원하며 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술관과 같은 공공 영역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트토크가 발산하는 에너지와 파급력은 지속가능해야한다.

향후 인문학, 사회학, 미술사, 작가 등 연구 영역과 깊이의 확장을 위한 연구방법론 프로그램을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한 사회적 의제에 보다 확장적이고 견고한 '연대'를 조직하고 변화를 견인하는 에듀케이터들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에듀케이터들이여, 연대하고, 진군하기를!

‘아트토크_에듀케이터’가 만드는 작은 변화의 씨앗

write.

유현주 생태미학예술연구소 대표

환경과 생태를 왜 말해야 하는가?

환경과 생태계를 주제로 한 이번 아트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열기는 사뭇 뜨거웠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이거나 소수의 예술가들이지만 이들이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곧 미래의 교육과 예술문화에 모종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이 강연자에게는 매력적이고 고무적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환경과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일까?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인류가 처한 긴급한 위기가 시시각각 닥쳐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의 이상 징후와 서식지를 잃은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태이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브뤼노 라투르가 지적하듯이 늘 문제의 사안은 복잡하며 기후변화의 원인도 단순히 대기나 자연의 순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인간/비인간 등의 행위자들의 연결 즉 기후의 문제를 일으킨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책임을 바로 인간행위자에게 우선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인류세’라는 1만 년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행해온 자연파괴, 즉 가축의 사료가 되는 목초지로 만들기 위해 지구의 산소공급지인 아마존의 나무숲을 사라지게 하고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대기를 이산화탄소 가득한 잿빛으로 만들며 플라스틱과 원자력폐기물 등으로 물고기와 새의 뱃속을 그리고 인간의 몸을 오염시키고 있는 행위자 바로 인간 자신에게 먼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극단으로 치닫는 환경오염과 팬데믹의 사태는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마스크와 비대면 방식의

만남을 권장하는 것이 일상이 된 삶, 현실적인 접촉 대신에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해야 할 일도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의 아바타를 통해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진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적 대안들만으로,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금세 문제를 잊어버리고 기술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해버린다. 팬데믹도 백신이 해결할 것이라고 믿으면, 다시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술도 이러한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예술-에듀케이터들이 만드는 미래의 문화

미술관은 이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서서히 시스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환경과 생태에 관련한 전시들도 부쩍 증가했고 그와 관련한 강연과 교육이 이어지는 중이다. 올해 ARKO에서 열린 전시들(홍이현숙/정재철 작가 전시 등)이 생태와 관련해 볼만하였고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온라인미술관 《지속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도 현재의 기후변화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더불어 비대면의 환경에서 온라인미술관에 관한 이슈들도 많아지고 있다.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린《오픈소스 스튜디오》에 이어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의《컬렉션 오픈, 해킹, 채굴》전시의 온라인 프로젝트《뮤지엄 메이커》라는 전시 모두 온라인미술관을 선보인 예이다. 미술관이 이제는 유튜브를 이용해 채널을 개설하고 미술관전시와 부대행사 및 작가와의 토크, 전시에 얽힌 Q&A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한편 미술관과 에듀케이터들에게 있어서 온라인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은 교육을 위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생태예술 전시가 열린다면, 사전에 교육을 받은 에듀케이터들이 그 전시와 관련한 여러 교육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컨텐츠를 관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로부터 받은 교육을 토대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예술가와 에듀케이터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실제 자신의 삶과 일터에서도 작은 실천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화의 변형을 가져오는 밑거름 역할을 한다. 일례로 우리의 식단과 음식과 탄소의 관계에 대해 의식하는 습관부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지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생각을 담은 예술작업으로부터, 기업에 플라스틱 포장을 줄여달라는 집단적 요구까지, 이렇게 삶과 환경과 예술과 정치가 연결된다면, 언젠가 현실에서 생태적 삶을 위한 방향으로 모아진 힘이 발휘될 수 있으리라.

공감과 희망의 연대

강연에서 만난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어쩐지 강연에 참여한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은 잘 느껴진다. 침묵 속에도 질문 중에도 진실한 감정은 오간다. 그들은 진심으로 생태예술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생태예술실천이 대지예술이나 정크아트와 어떻게 구분되지 알고 싶어 했다. 어떤 작업들이 있으며 그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재료들이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재료들이면서 현실에 모종의 개입을 하는 작업들도 있음을 알게된 것에 기뻐하는 것 같았다. 생태예술이 예술계 안에서 어려운 지점에 놓이는 부분이 있음도 나는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예술이 윤리적인 실천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예술 자체의 자율성을 증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학적인 논의와 관계가 있어서다. 그러나 그러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동시대예술의 하나로서 생태예술이 부각되는 이유가 시대의 정신에 있다는 것 즉 지구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지 못하는 인간 자신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공감만으로도 누구든 충분히 소통가능하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연결한다. 공감과 희망의 연대가 시작된다. 아트토크가 빛나는 이유다.







이제 막 시작된 2200년 우리의 물 이야기

write.

무진형제 작가

작가의 입장에서 전시 외에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은 관람객의 얼굴이 각인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비로소 익명의 관람객이라는 피상적인 명칭이 허물어지고 각각의 이름과 얼굴이 전해주는 구체적인 이야기와 이미지가 남게 된다. 그만큼 작가에게 있어 미술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는 남다르다. 참여자 작가와 참여자 관람객 각자의 몸과 언어, 무엇보다 각자의 서사가 미술관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매우 미묘하고 복잡하게 뒤얽힌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아주 큰 배움과 깨달음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렇게 작가의 입장에서 관람객과의 대면 만남은 다양한 몸짓과 언어, 그리고 생각이 교환되고 뒤얽히는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무진형제는 미술관에서의 교육에 참여하는 걸 매우 좋아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좋아했다. 코로나19 이후 아직까지 다수의 관람객들과 대면 만남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2020년 이후 모든 프로그램이 줌으로 진행되었고, 그나마 우편으로 워크숍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 변화에 대한 언급은 펜데믹이란 거대한 사이클을 겪은 뒤 좀 더 차분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안전한 비대면 혹은 그럼에도 해야 하는 대면이라는 양자택일 앞에서 무진형제는 안전한 대면이 이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르코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계기 또한 이 때문이었다.
물론 우리가 대면으로 만난 참여자들은 5명의 에듀케이터들이었다. 미술관에서 교육 및 워크숍을 기획하고 주재하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워크숍을 기획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다소 걱정이 되면서도 사전에 5명의 에듀케이터 지원자 분들이 제출해주신 지원서를 읽다 보니 한 분 한 분에 대한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다.



이미 흥미롭고 재미있는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이 많이 제시되어 있었다. 참여자들과 함께 제시된 주제를 어떻게 더 깊이 사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공공미술에 가까운 방식으로 워크숍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미 수차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살린 분도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성향은 워크숍 기획을 할 때 더욱 두드러졌다.

동시대인들의 삶 속에 실재하는 물

5명의 에듀케이터와 함께 워크숍을 하는 동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정보의 주입이 아니라 각자가 어떤 식으로든 지독하게 겪고 있을 생태 및 환경에 관한 서사임을 알게 되었다. 캠페인성 구호와 이미지, 그리고 환경에 올바른 행위만이 아니라 서로의 말과 그림을 교환하는 가운데 직조되는 관계와 공유되는 이야기가 더 시급했다. 5명의 에듀케이터 분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동의를 해주셨다. 캠페인성 구호에 가려진 개인의 서사를 끄집어내이를 미술관의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공유하고 사유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팬데믹 시대에 공공기관으로써의 미술관이란 플랫폼에서 최대한 많은 이들과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시각화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중요했다. 물론 이 중요한 문제를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것도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은 상황에서) 푸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다. 다수의 사람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온라인 플랫폼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의 워크숍은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5명의 에듀케이터들과 아르코, 그리고 무진형제를 비롯해 함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환경과 생태라는 주제만 들고 이를 미술관에서 새로운 언어와 이미지로 어떻게 교육할지(물론 공유하고 실행하고 창안한다는 의미에서의) 이제 막 첫 발을 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폐쇄와 제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내에서 어떻게든 서로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일단 각자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풀어내기로 결정했다.

〈2200년 물의 얼굴〉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막상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참여자들과 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그림을 주고받다 보니 '이렇게라도 만나서 정말 반갑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이 올린 그림과 글을 보며 지금 우리에게는 생태와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수집하는 게 우선이라는 처음 기획 단계에서의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생태와 환경 문제에 관한 언어와 이미지가 매우 획일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전 지구적인 문제여서일까? 아주 먼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통의 슬로건, 그리고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환경 파괴의 이미지와 정보가 전부였다. 그 먼 곳의 사건이 지금 우리의 경험이 된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먼 곳의 배경을 바라보며 듣고 습득했던 말들, 그리고 막연한 해결책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재난과 멸망 같은 절망적인 말만 떠올릴 뿐이었다. 지금 우리의 문제라면 당연히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르코의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서 있는 오염된 바닷가의 모습, 2200년이란 다소 먼 시간에 전하고픈 개인의 메시지 등은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지금 각자가 경험하고 감각하는 물을 중심으로 한 생태 및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며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관념의 물이 아니라 동시대인들의 삶 속에 실재하는 물을 알게 해주었다. 비록 참여자들과 만나지 못했지만, 오히려 말과 그림이라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만나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잘 듣고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개인의 말과 그림으로 생태와 환경을 말할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150여 명의 참여자들과 함께한 이번 워크숍이 남다른 또 다른 이유는 비대면 자체에 있었다. 이미 생태와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결과들, 즉 코로나19에 의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의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무언가를 동시에 함께 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뼈아프게 다가왔다. 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생태 및 환경의 얼굴, 즉 다양한 개인 서사를 모을 수 있었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상실한 것들을 되짚어 보는 건 어떨지, 제안해본다.

대화
&

물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에게
〈2200년 물의 얼굴〉:
이지연

잊혀진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법:
강경원

2200년 물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김주희·김민정

아트토크에서 길어올린
에듀케이터의 문장들:
김란희

2200년
물의 얼굴

Shape of Water Year 2200

우리는 물과 얼마나 친할까요? 섭수 21.8.17(Tue) 21.8.22(Sun) 아르코미술관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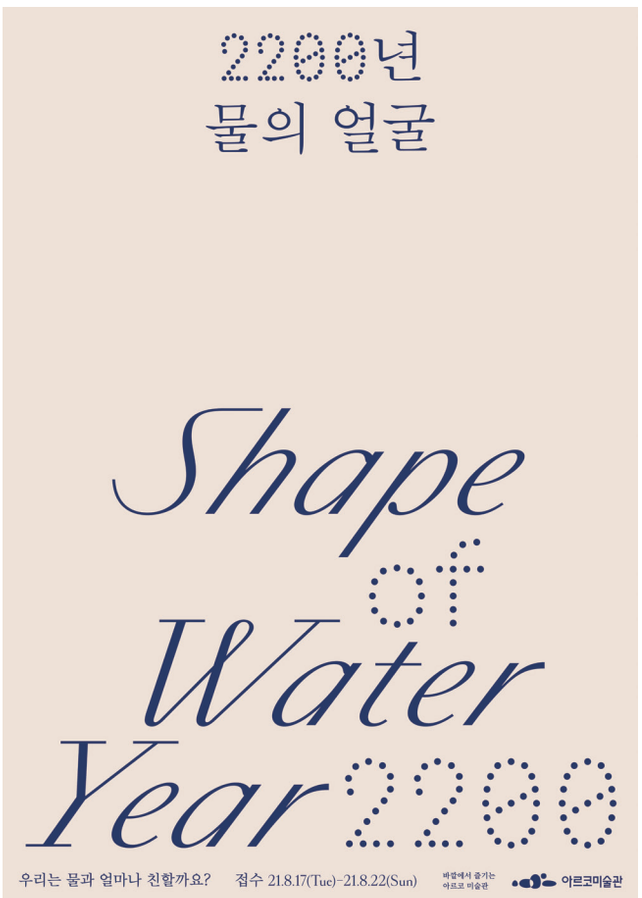




물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에게 〈2200년 물의 얼굴〉

write.

이지연



〈2200년 물의 얼굴〉은 생태예술교육의 논의 안에서 기획된 참여형 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 현대의 인류가 잃어버린 물과의 연대감, 공존의 감각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써 2200년 물의 얼굴을 상상해 보기를 제안한다. 2021년 8월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서는 약 50여 개의 물의 얼굴들이 수집되고 개인의 경험은 하나의 영상안에서 공동의 기억으로 기록된다.

운영 기간	2021년 8월 17일(화) ~ 9월 30일(목)
참여 대상	물과 함께 살아가는 누구나
참여 인원	150명
운영 방식	워크시트 발송, 참여자 작품 수합 후 영상 제작
기획 및 운영	강경원, 김란희, 김민정, 김주희, 이지연
협력	무진형제, 유현주, 조장은, 이민영

인간과 물의 순환

빗물에서 바닷물까지, 끊임없이 순환하는 물은 지구 생태계의 허파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인류 역시 모체의 양수 속에서 최초의 생명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무수한 양, 무수한 종류의 물과 관계하며 살아간다. 마시고, 버리고, 씻어내고, 담그며, 가두고, 배출한다. 그것은 다시 흙으로 강으로 바다로 흐르며 순환을 이룬다. 물은 허공에 떠 있고 땅 밑을 흐르며 세계를 감싼다. 인류의 곁에 항상 자리해 온 물은 신화적 상상력과 다양한 이야기의 원천이 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의 인류는 물과의 깊은 연대감, 공존의 감각을 상실한 지 오래다.

공존과 연결의 회복

본 프로그램에서는 허구와 이야기의 힘을 빌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시 성찰하며 정복의 대상이자 자원으로서의 생태가 아닌, 나와 연결된 존재로서의 물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미래를 물의 얼굴로써 형상화하기를 시도하며, 물 그 자체로서의 우리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우리는 공존과 연결의 키워드로서 물을 강조하며 그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하고자 한다. 그것은 물의 얼굴로 표현되어 발화하고 하나의 커다란 물결을 이루게 될 것이다.

물의 순환, 물과 인간의 순환, 물과 사람의 연결, 물과 생명의 관계 등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 꺼내어보지 않은 많은 물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보자. 이로써 인간과 물의 다양한 관계와 연결을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기능으로서의 물, 자원으로서의 물을 벗어나 우리에게 필요한 물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은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재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2200년의 물을 상상하고 공유하며, 이 과정을 통해 물과 인류 사이의 연결된 감각이 다시 깨어나기를 기대한다.

잊혀진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법

Edit.

강경원

"자연의 물이 도시의 배관을 지나 가정의 수도관으로 들어오기까지 거치는 혹은 무형의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비로 흘러내려 광대한 바다로 나아가기까지의 여정을 상상한다."

일상이 재난영화에 가까워진 무렵, 5인의 에듀케이터는 생태예술교육에 관해 논의했다. 주제는 물.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모든 이들을 흐르며 지나는 물로써 환경 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물'과 관련된 환경 문제로는 이상 기후, 수질 오염, 해수면 상승 등을 자연스레 연상할 수 있다. 다만 거시적인 문제로 풀이하는 것은 이미 너무 익숙하여 새롭지 않을지도, 내 삶에 녹아 들이기엔 어려울지도 모른다. 우리는 무진형제 작가의 추천작 이반 일리치(Ivan Illich)의 『H2O와 망각의 강』에서 힌트를 얻었다.
우리는 '나와 연결된 물'의 이야기를 모아 퍼뜨리는 수집가가 되기로 했다. 다층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물은 신화적 상상력과 다양한 서사의 원천이 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거리감이 있는 자연요소 또는 무미건조한 화학물질로만 여기고 있지 않을까. 대상에 대한 이해와 자각, 지속가능한 행동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것. 내 삶과 물 사이의 연결고리를 시각화, 서사화하는 것을 관계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29 물빛 조각보 기우기

2021 바깥에서 즐기는 아르코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2200년 물의 얼굴〉은 5인의 아트토크 에듀케이터, 무진형제 작가와 참여자들이 함께 '물의 얼굴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의식 속에서 삭제된 물의 형(形), 색(色), 향(香)을 복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참여자들의 집으로 세 장의 엽서가 전달된다. 엽서는 삼원페이퍼의 100% 재생지 센토(Cento)로 제작된 것으로, 두 장은 각각 포스터, 물과 친해지기 위한 질문들과 무진형제의 글을 담고 있고, 한 장은 물의 얼굴을 그리기 위한 용지다. 참여자들은 혼자서 혹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이드에 따라 물의 의미를 생각하고 얼굴을 그린다. 이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자신의 그림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참여자의 작품을 감상하거나 글에 공감하며 코멘트를 남긴다. 이들이 남겨준 서사는 하나의 영상으로 모여 2200년 물의 얼굴을 형상화한다.





2200년
물의 얼굴

Shape of Water,
Year 2200

1. 물과 나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나에게 의미 있는 물을 소개해 주세요.
나에게 의미 있는 물은 어떤 물인가요?
그 물은 어디에 있고 2200년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물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과 함께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물과 함께한 인상 깊은 기억이 있나요?
물과 어떤 행위를 함께 했고 당시의 느낌은 어떠했나요?
나와 함께한 물은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2200년의 물은 나와의 추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2. 2200년 물의 얼굴을 그려보자

· 1번에서 떠올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2200년 물의 얼굴>을 워크시트에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내가 보는 물을 표현해도 좋고 물의 입장에서 표현해 보아도 좋습니다. 2200년 물의 색과 향, 형태, 온도, 물의 기분, 표정까지 다양하게 상상해보세요.

· 표현방식과 표현재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연필, 펜, 아이패드, 자연재료들, 흙, 물, 식물을 이용한 드로잉, 콜라주, 사진, 금속기둥

완성한 워크시트는 8월 3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2200년 물의 얼굴'로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업로드 완료 시에만 경품(친환경 비건 클렌징바) 추첨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제출한 이미지는 수합하여 영상으로 제작, 공개될 수 있으며 욕설, 폭행, 비방 및 기타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갈 시 영상 제작에서 제외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2200년 물의 얼굴>
입장 QR코드

아르코미술관

물은 공짜가 아니다. 물은 사용되는 것이며, 요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의 물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은 자연의 물을 적정 수질환경기준에 따라 정화한 결과다. 그 정화의 과정에서 걸러진 것은 오래수만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형성된 물 속 생태계와 그 안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까지 함께 걸러내고 있다. 물론 그 물의 유래와 정유지, 그리고 그곳에 담긴 시간의 흔적과 층층이 쌓인 이야기까지 모두 걸러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손에 쥐어진 물에 대한 기록이라곤 개인의 물 사용량과 그에 따른 비용이 기록된 영수증이 전부이다.

최근에는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에 하얀 필터를 장착해 오래된 상수도관으로부터 흘러나온 녹물과 미세한 세균을 차단하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개인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도심의 물이 공유재란 개념마저 걸려지고 있다. 그사이, 언젠가부터 피상적으로 예기되던 세계와 물에 대한 수많은 담론과 이야기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가령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산성화 된다는 등의 아주 먼 곳에서 벌어질 것 같았던 재앙의 이미지가 랜덤박을 통해 우리의 현실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었다. 결국 가까운 물의 얼굴은 무미건조한 영수증에 적힌 숫자들처럼 보였다. 반면 멀리서 보면 늘 일상과 괴리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릿한 파괴와 먼 미래에나 실현 가능할 재난처럼 보였다. 그렇게 우리의 물은 구체적인 삶과 이야기가 결여된 위장된 얼굴로 드러났다.

무색, 무취, 무미의 투명한 물의 얼굴은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는 동시대의 강박을 감추고 있다. 투명하다는 것은 결국 다중의 얼굴을 지우고 개인과 세계가 처한 다양한 삶의 조건에 대해 침묵하게 만든다. 어떻게든 지금 우리의 물에 대해 얘기하고 이를 함께 공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명하고 조용한 물의 얼굴에 이제는 좀 이질적이고 다채로운 것들이 끼어들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주고받는 물 이야기로부터 수초도 자라고 물고기도 헤엄치는 사끌벅적한 물의 표정을 만들어가길 조심스럽게 바래본다.

글
무진형재



©주예준

Q. '2200년'과 '물의 얼굴'을 키워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김란희 환경문제와 결부된 주제를 프로그램명에서 드러내기보다는 참여자들이 '미래'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고 싶었다. 그 결과 '2200년'이라는 미래의 특정 시점을 설정하게 되었다. '물의 얼굴'은 이지연 에듀케이터의 기획안 내용에서 발전했다. 개인의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물은 무색무취하지 않고 개성이 드러나는 얼굴처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Q. 전반적으로 참여자의 자발성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조립법이 정해진 키트를 완성하는 방법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주어진 질문에 스스로 응답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물의 얼굴을 그리기 위한 표현방식과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지연 우리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다. 에듀케이터가 제시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그 과정 안에서 지금껏 생각지 못한 부분을 마주하고 사유할 수 있는 예술 경험이 되도록 기획했다. 특히 인간 대 비인간의 이분법을 넘어 물의 입장에서 개인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허구적 상상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발화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정리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전체 참여자 150명 중 3분의 1 이상인 57명이 채팅방에 참가했고, 그중 43명이 44점의 작품을 공유했다. 물의 얼굴은 색연필, 마카, 물감, 사진, 마스킹 테이프, 아이패드 드로잉 등으로 표현되었고, 실제 얼굴이나 표정, 자연과 도시에 있는 물과 같은 구상 형태부터 물의 번짐, 튀김, 흐름과 같은 추상 형태까지 다채롭게 나타났다. 그림에 담긴 의미는 개인의 경험에서 발화한 것이나 제각각이면서도 교차점과 공통점을 보였다.



©욥



Q. 참여자들이 공유한 작품들 중에서 물의 양면성을 보여준 그림들이 눈에 띄었다. '깨끗한 물은 정화와 세정, 긍정적인 이미지를 의미하지만, 때론 이 청명함이 오염과 문제를 덮어버리기도 한다'는 이반 일리치와 무진형제 작가의 글, 〈2200년 물의 얼굴〉이 기억해내려 한 물의 온갖 면모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기억에 남는 얼굴이 있는가.

김민정 모든 비구상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다. '얼굴'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이목구비를 갖춘 사전적 의미의 얼굴을 쉽게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2200년 물의 얼굴〉에 모인 작품들 중에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 미래에 대한 바람을 색과 형태로 '물의 얼굴'을 표현해 준 추상적 이미지들도 적지 않다. 무진형제가 이끌어준 물에 대한 사유의 물꼬가 참여자들 개개인에게 닿아 에듀케이터들이 기대했던 동시대 물의 서사 - 참여자와 환경(생태)를 연결하는 예술 경험에 의한 신화적 이야기 - 가 엮이는 과정이 추상적인 이미지들에 잘 나타난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

Q. 언택트 상황에서 오픈 채팅방을 플랫폼으로 선택한 점이 흥미롭다. 이야기가 쌓이면서 채팅방은 인문학 연구소나 책방의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고,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작품을 소개할 때는 소학교가 된 것 같기도 했다. 기대한 것에 비해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들 간의 소통과 교류, 반응은 어떠했는지, 더 오갔으면 싶은 얘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김주희 오픈 채팅방은 언택트 상황에서 이미지를 수합하기에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선택했다. 참여자들 간의 교류에는 사실 큰 기대가 없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물'이라는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매력적인 작품들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하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감상평을 남겨주었다. 특히 물에 대한 아이들의 순수하고 귀여운 생각이 공유될 때 반응이 좋았던 것 같다. 채팅방에 숨어계시던(?) 에듀케이터들과 무진형제가 대화를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기도 하다. 더 많은 작품과 이야기가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팅방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물을 더욱 가깝고 친하게 느끼실 거라고 믿는다.



각자의 의식 아래 흩어졌던 이야기가 얼기설기 엮어 탄생한 물빛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니며 참여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 물과 우리의 모습을 읊어주는 전기수(傳奇叟)가 된다. 물의 서사를 마주하고 되새기는 지점에서 생기는 또 다른 공명 속에서 물과 인간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기를 바란다.

2200년 물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Edit.

김주희·김민정

안녕하세요.
저는 물방울을 통과하는 빛과 함께 제가 만난 다양한 물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무심코 지나보낸 물들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물을 간절히 원하기도, 불편해하기도 하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아름답지만, 이따금 무서운 면모의 물의 얼굴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작으면서도 큰 힘을 가진 물이 200년 뒤에도 변함없이 남아있길 바라봅니다. 지금처럼 우리 곁에 소중히 남아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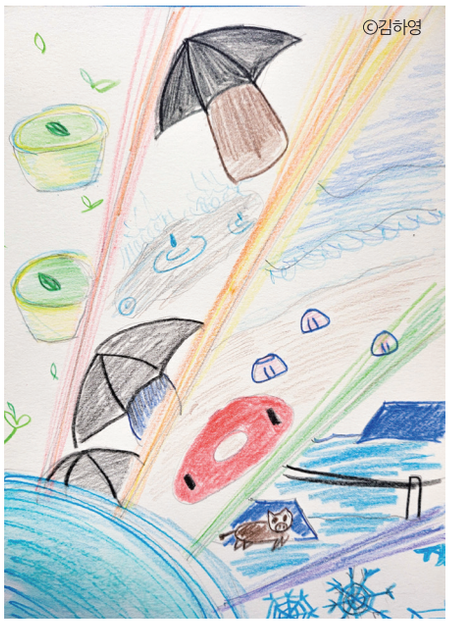
두려운 고귀함에서 친근하고 익숙한 존재로
김하영(HY) 님

Q. 어떤 계기로 <2200년 물의 얼굴>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에 대해 들으면서 '신기하다', '재미있다'라고 생각했죠. '물'이라고 하면 일상 속에 되게 친근한 소재인데 '2200년의 물'이라고 하니 새로웠어요.
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직업병처럼 이런 재미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도 친근한 물을 소재로 삼고 있고 내용 또한 흥미로운 만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하영님의 '2200년 물의 얼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처음에는 좀 막막해서,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물의 모습들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일단 '물'이라고 하니, 그것과 관련 있는 가장 예쁜 이미지로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며 다른 굴절각으로 나뉘는 원리에 착안해 화면을 몇 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물과 관련된 저의 기억들을 그려 넣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차, 바다, 눈 등. 한편으로는 저를 무섭거나 불쾌하게 했던 물도 그려 보았어요. 최근 비가 내려 외출할 때 느낀 눅눅함, 불편함… 그런 여러 가지를 욕심을 부려서 다 그렸습니다.


©김하영

Q. <2200년 물의 얼굴> 참여 후 '물'에 관한 생각이나 태도에 변화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 '물'하면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게 제 주변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 '소중한 것'이라고만 하면 '고귀한 것'이라는 좀 친숙하지 않은 어려운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생각보다 물이 되게 친근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상의 '친근한 것', '익숙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물 또한 잃기 전에 더 친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프로그램에서 특히 좋았던 점이 있었나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좋았던 점이 많았어요. 우선 남녀노소 참여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좋았고,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참여자분들의 작품을 보면서 바로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어머님과 아이들이 함께 한 그림들도 볼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들도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활동,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셨구나 했어요.

Q. 앞으로 아르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친구가 소개해주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미술관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관심이 없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 것 같지만 원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술관의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어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널리 홍보되고 학교와도 연계되면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던 날씨는 해가 맑게 떠 있는 하늘에 비가 내리는 '여우비'였습니다. 해 뜬 날의 따사로움과 비 오는 날의 시원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 주는 여우비는, 주로 태풍과 함께 동반되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7~9월 늦여름철에 아주 드물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먼 곳에서 내린 비가 화창한 지대까지 옮겨온 것입니다. 180년 뒤에 어떤 기후 변화가 일어나 있을지, 그럼 변화가 여우비의 빈도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친 태풍이 지나가면 예쁜 여우비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그만큼 더욱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아름다운 미래

옥종훈(아기곰나무) 님

Q. 어떤 계기로 〈2200년 물의 얼굴〉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사실 이전에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2200년 물의 얼굴〉을 기획한 신진 에듀케이터 중 한 명이 친구라서 친구의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미술관을 즐겨 찾는 편도 아니라서 처음에는 미술 활동을 한다는 것이 많이 어색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소개해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Q. 종훈님의 '2200년 물의 얼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인 '여우비' 내리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여우비는 해가 맑게 떠 있는 하늘에 가는 비가 내리는 날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우비는 늦은 여름철, 태풍 직후에 아주 드물게 즐길 수 있습니다. 180년 후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날씨가 얼마나 크게 변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예쁜 여우비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인류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결국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Q. 〈2200년 물의 얼굴〉 참여 후 '물'에 관한 생각이나 태도에 변화가 있었나요?

사실 이전에는 '물'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니 물과 저의 관계 그리고 물과 함께했던 추억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면 항상 동네에 조그만 천이나 강변 등 물가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휴식을 취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물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Q. 이번 프로그램에서 특히 좋았던 점이 있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미지가 공유되어 다른 참가자들의 물의 얼굴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이 특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는데, 몇몇 참가자분들이 올린 작품들은 예술작품이나 다름없었어요. 물을 종이에 직접 떨어트려 물의 움직임을 따라 그렸던 작품이 특히 멋있었습니다.

Q. 앞으로 아르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친구의 소개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재미있었지만, 평소에는 바쁜 일상 중에 시간을 내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부여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트토크에서 길어올린 에듀케이터의 문장들

write.

김란희

에듀케이터 전문인 과정이 시작되었던 날의 설레는 긴장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생태계와 미술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걸맞은 팬데믹 시대에 다섯 명의 에듀케이터와 미술관의 선생님들, 조장은 연구관님이 한자리에 모였었더랬다. 나는 마스크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다른 분들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코와 입을 상상하고 표정을 읽어내기 위해 무진 애를 썼던 기억이 있다. 그분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어서 그랬는지 첫날부터 우리는 꽤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아트토크 마지막 날 '물'로 주제가 확정되고 〈2200년 물의 얼굴〉이라는 타이틀이 나오기까지 회자된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과장일까? 나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에듀케이터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볼 수 있어?'라고 감탄하며 일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에듀케이터는 어떤 일을 할까? 교육 프로그램의 시작을 기준점으로 설정해보자. 에듀케이터는 프로그램의 시작 전에는 분명 꼼꼼하고 예민한 기획자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참여자들이 등장하면 에듀케이터는 한 발치 물러나 참여자들을 기다리고 관찰한다. 한마디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순간 기획자에서 관찰하는 교육자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간극이 에듀케이터의 매력이자 특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에듀케이터를 단순히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한정 짓기에는 너무 얕은 표현이 아닌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두 매력을 가진 에듀케이터는 특히 어떤 것을 염두 해야 할까?

이번 아트토크에서는 아르코미술관 측에서 주제를 먼저 제시했고 주제의식에 정통하신 강사님들도 섭외해주셔서 언제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에듀케이터 혼자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사님들의 말씀과 경험을 반추해 내가 배운 것들을 짧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주제를 선정할 때는 주변을 살핀다.

예를 들어 생태계라는 주제는 오래된 모티프처럼 존재했지만 동물과 인간이 바이러스를 공유하게 된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는다. 프로그램은 에듀케이터가 기획하지만 완성은 참여자들의 몫이므로 나(에듀케이터)와 그 외의 많은 사람들(참여자)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면 주제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벌써 발 빠른 누군가가 전시를 기획했을 수 있으니 현재 전시 중이거나 예정 전시들을 항상 눈여겨보면서 기획의 방향을 잡고 가능하다면 전시와 연계해 참여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참여자들이다.

에듀케이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도를 녹인다. 프로그램에 애정이 많을수록 기획 의도와 교육 목표를 강조하고 싶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기획자의 손을 떠나 공개되는 순간부터는 참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프로그램이 원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참여자들에게 직접 방향을 제시하기보단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 추가 설명을 통해 수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야기를 하자!

〈2200년 물의 얼굴〉을 기획, 운영하는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누었던 대화들부터 기획안을 작성하고 촘촘하게 수정해나간 부분과 참여 키트를 보낼 우편의 종류, 가격을 정하고 참여자들의 코멘트를 받기까지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대화가 있어서 가능했다. 5인의 에듀케이터가 각각 상상했던 프로그램이 의견 교환을 통해 풍부해지고 문제점도 드러나면서 보다 나은 기획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었다는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에듀케이터는 직업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고 거창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말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2200년 물의 얼굴〉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아트토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니 기쁨의 순간들만큼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다. 나는 이런 기억과 감정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차곡히 담아두었다가 다음에 기회에 마음껏 반영해 보자고 나와 새끼손가락을 건다. 그리고 우리들은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다가 어딘가에서 각자의 색과 향이 입혀진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온 마음으로 희망한다.

2021 아르코미술관 전문인교육_아트토크 에듀케이터과정(1)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박종관

아르코미술관
관장 : 임근혜
미술관운영부장 : 최혜주
교육팀장 : 정지은
교육팀 : 이민영, 오은미
교육인턴 : 최윤지

발행정보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03087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02-760-4850
www.arko.or.kr

디자인 및 편집 : 131watt

책에 실린 인터뷰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2021. ARKO all rights reserved.